

1982년 창립 ... 내년 세계학술대회 서울 유치

대한교통학회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는 인간과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공학이란 학문은 이러한 이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문제 해결은 정치인들의 공약순위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률에서도 언제나 선두를 차지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처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기인하고, 이는 교통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문제 등 교통환경의 악화와 에너지부족 문제까지 연결된다. 그러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당국의 재원조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통문제 해결의 방향성은 교통시설 확충 및 개량투자와 병행하여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모색하고 나아가 환경친화적이고 지능화된 교통체계 구축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황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통공학의 이론적 토대 구축과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정책수립의 단

1982년 11월 창립된
대한교통학회는
개인회원 1천1백99명,
단체회원 38개, 기관회원 75개가
몽쳐 활발한 학술활동을 펴고 있다.
매년 6회의 학회지 발간과
2회의 학술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내년 7월 22일부터 6일간 열리는
제19차 세계 교통학회 학술대회를
서울로 유치하여
행사준비를 진행중이다.

계에서 학계, 업계, 관계의 성실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학회는 학계, 업계, 관계 등 교통분야 회원 상호간의 교류증진과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유통 등 각 관련분야의 학문적, 실무적, 정책적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82년 11월 18일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개인회원 1천여명 결집

그 후 1989년 4월 15일 법인으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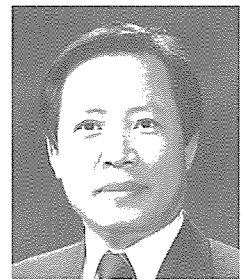
록되었으며 현재 개인회원 1천1백99명, 단체회원 38개 단체, 기관회원 75개 기관 등이 등록되어, 활발한 학술활동과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 등의 활동에 힘쓰고 있다.

본 학회의 학술활동으로는, 정기적으로 학회지를 연 6회 발행하여 회원간의 학문적, 기술적 교류가 원활하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논문을 정책과 이론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학술적 노력들이 공유되도록 하고, 학문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논문을 엄선하여 교통학회 학술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다.

또한 논문발표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연간 1백20편 이상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연 4회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있다. 한편, 학문의 전문화를 위하여 학회 내에 13개의 분과위원회(교통계획, 대중교통, 경제 및 물류, 도로, 교통운영, 주차, 교통안전, 녹색교통, 철도, 해운, 항공, ITS, GIS-T)와 3개의 위원회(제도개선, 해외협력, 편찬) 등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각자가 관심 3개 분야에



1999년 3월 22일 열린 대한교통학회 제1차 학술토론회



車東得

〈대한교통학회 회장〉

등록하도록 하여 소위원회 모임을 통한 학술토론, 연구기준 개발 및 각종 분석기법 개발로 전공분야 연구활동 효과의 극대화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학회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학회 소식지를 연 4회 발행하여 학회 및 회원들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학회에서는 해외 관련단체와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유대 강화 및 최신 학문적 업적 공유를 도모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상해철도학회와는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97년 동아시아 학술대회 유치

이러한 맥락에서 1994년 11월 28일 본 학회를 포함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교통관련 학술연구단체 및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동아시아교통학회(The Eastern Asia Society For Transportation : EAST)를 결성하여 1995년 9월과 1997년 10월에 동아시아 교통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회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여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13개국의 교통관련 학자, 정부기관의 관련자 그리고 민간단체 연구자들이 23개의 소주제에 대한 연구결과, 교통관련 사업 및 정책시행 결과 등에 관한 1백8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각국의 교통상황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본 학회와 제5회 ITS조직위원회가 1998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동 개최한 제5회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지능형 교통시스템) 서울세계대회에서는 전 세계 50개국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7백33편의 논문발표와 전체회의 3회, 집행위원회의 12회, 기술회의 1백4회, 특별회의 28회 등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도로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학 전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였고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학문발전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학회와 교통개발연구원은 제9차 세계교통학회(WCTR : The World Conference on Transport Research) 학술대회를 2001년 7월 22일부터 7월27까지 6일간 서울 ASEM국제회

의장에서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교통학회는 매 3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교통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있는 전문가 위주의 모임이다. 이번 9차 서울대회는 세계 각국 교통분야의 학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구원, 교통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나누게 되므로 학술적인 연구결과와 정책수립, 기술개발 등이 공유된 교통분야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술대회에는 국내외에서 2천여명의 교통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8개 대주제의 42개 소주제 분야에서 5백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학술능력이 세계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국위선양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학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를 망라하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추진하여, 교통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선진화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교통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되고자 한다. ㉞